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제188호 - 창립 2020.6.28



길목교회
THEWAY NEWS

주후 2024.2.18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사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카페 테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 이길주
교육목사 : 권세진
교육전도사 : 전정민
사역자 :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 전정민
가야금 : 김고은
해금 : 이건명
베이스 : 장 천
피아노 : 정지혜
기타 : 조성권

홈페이지

theway.news



주일에배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 이길주 목사

입례송 <주님을 찬양하라> 다같이

♩ = 63 *p* Eb Ab Eb Bb Cm G Cm Bb Eb Ab Bb Eb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Ab Eb Bb Cm Ab Bb4 -3 Eb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성시 교독 <시편 28편> 다같이

(인도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성도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인도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성도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인도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성도들)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인도자)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성도들)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인도자) 여호와를 찬송함이어
 (성도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인도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성도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같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참회 기도 <나,이웃,교회,나라,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신..... 다같이

(인도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함받았습니다.

(성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찬양팀과 함께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말씀과 나눔

말씀 교독과 듣기..... <사도행전 16:6-15>..... 다같이

말씀 묵상 및 나눔..... 다같이

말씀 권면..... 이길주 목사

묵상 기도..... 다같이

응답의 찬양..... 다같이

♩ = 72
p F C Dm B♭ D G C F C Dm Gm C 3 F

사 랑 의 나 눔 있 는 곳 에 하 나 님 께 서 계 시 도 - 다
2번 함께 부릅니다

말씀 기도..... 다같이

응답과 축복

✚ 감사 찬양..... <감사하여라>..... 다같이

✚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주의 자녀 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다같이)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감사노트

성경말씀 메시지

6-8 그들은 브루기아로 갔다가, 갈라디아를 지나갔다. 그들의 계획은 서쪽으로 방향을 잡아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으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로 갔다. 거기서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께서 그쪽으로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항으로 내려갔다.

9-10 그날 밤에 바울은 꿈을 꾸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멀리 해안에 서서 바다 건너 이쪽을 향해 외쳤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꿈이 바울의 갈 길을 정해 주었다. 우리는 곧장 마케도니아로 건너갈 준비에 착수했다. 모든 조각이 꼭 들어맞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럽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했다.

11-12 드로아 항을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이튿날 ‘네압볼리’(신도시)에 배를 대고 거기서부터 걸어서 빌립보로 갔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주요 도시이자, 더 중요하게는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거기서 며칠을 묵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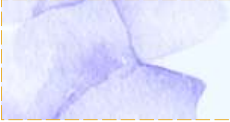
13-14 안식일에, 우리는 시내를 벗어나 기도 모임이 있다는 곳으로 강을 따라 내려갔다. 우리는 그곳에 모여 있는 여자들 곁에 자리를 잡고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 가운데는 값비싼 직물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의 상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로 알려져 있었다. 우리의 말을 열심히 듣던 중에, 주님께서 루디아에게 믿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녀는 믿었다!

15 루디아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세례를 받은 뒤에, 우리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일에 당신들과 하나이며 참으로 주님을 믿는 줄로 당신이 확신한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는 주저했으나, 그녀는 절대로 우리의 거절을 받아들일 태세가 아니었다.

성경말씀

개역개정

6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8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11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리로 가고 12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말씀묵상



감사찬양

감사하여라



교회안내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20 (10:30 커피타임시작)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2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0:30~3:00
주일오후 프로그램	주일 오후 1:00~3:00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사역 헌금 계좌]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 가치추구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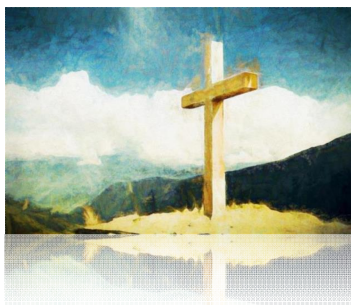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사역후원요청

기드온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용사로 준비되기

성경공부

목회자후보생들의 성경지식 함양을 위하여 배정훈 신대원장님과 함께하는 '요절로 읽는 구약통독' 특강을 진행함(2/6,8,14,16).
더불어 학기 중 매주 월요일 학생 주도 성경스터디를 운영할 예정.

신대원에 입학하여 교육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의 막막함을 해소하고,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며, 더 준비된 사역자로 현장에 설 수 있도록 도움.

전도사학교 (2/21)

사역박람회 (3/21-22)

신대원 학우들의 다양한 사역 진로 탐색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과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안내 부스 설치 및 설명회를 개최함.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신대원 학우들의 다양한 사역 진로 탐색과 함께 자신의 흥미와 열정, 타고난 재능과 강점을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함.

사하라세미나 (3/28)

나의 미래 목회 공모전 (4월 중)

사역박람회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글로벌현장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창의적 사역 프로젝트 공모전>과 협력하여 전문가의 지도 아래 사역을 디자인하고, 재정지원 및 결과 보고를 통해 졸업 후 실제 사역으로의 연결을 목표로 함.

교단 소속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교단 총회의 역할과 최근 총회에서 결정되고 연구된 내용들에 대하여 바로 알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함.

서기록으로 본 108회 총회 (4월 중)

허브학우회 PUS 장로회신학대학교

사역 후원 계좌번호
임유빈 100075215885 토스뱅크



공동체소식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년 신약성경통독

신약성경통독이 이제 7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주에도 기쁨과 은혜의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신약이 마친 뒤에는 3월4일(월)부터 <모세오경> 성경통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파이팅해주세요 ^^

다음주 참어나눔예배

다음주 25일에는 참어나눔예배로 드립니다. 온 성도가 함께 말씀을 더욱 깊이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깃드는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역 후원 요청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우회에서 하는 사역에 여러분의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의 한국교회를 책임질 목회자들의 교육과 그들의 사역지원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전정민 전도사님이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학우회 사역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담임목사 해외 성지순례 사역

2월19일부터 2.29일까지 개운감리교회 팀을 이끌고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 다녀옵니다. 참여하는 교인들의 안전과 은혜로운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올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중보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